



첫마중길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앞장

4일 전주시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첫 마중길 대로변에 위치한 8개 건물주, 임차인, 첫 마중길 상생협의회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건물주-임차인-전주시 3자 간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 한옥마을, 북한에 소개하고픈 명소

청소년 대상 남북교류 활성화 설문서 1위로 선정  
서울 강남 등 제치고 국가대표 관광지 명성 재확인

최근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며 남북화해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전주한옥마을이 대한민국 10대 청소년들이 북한에 소개해주고 싶은 명소로 뽑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엘리트 학생 북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 교류 활성화 관련 설문조사에서 북한 청소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대한민국 명소 1위로 전주한옥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3년 만에 재개되면서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 등 남북 교류 확대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은 국내 대표 관광명소인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 제주 성산일출봉 등을 제치고 25%의 청소년의 지지를 받으며 1위에 선정돼 국가대표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한편, 전주한옥마을에서는 9월에서 10월까지 △전주비빔밥 축제 △2018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2018 전주서사대전 △전주문화재 야행 △한복 day 행사 등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 할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폭우에 무너진 담장

4일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완산공원 일대에 밤사이 내린 폭우로 토사가 흘러내려 인근 마을 외벽이 무너져 있다.

## 전주 팔복동 산단 주변 하수관로 정비

전주시가 팔복동 산업단지 주변 하수관로를 정비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21년까지 국비 118억원 등 총 237억원을 투입해 팔복동 산업단지 주변 하수관로의 우수(빗물)관과 오수(오염된 물)관을 분리하는 팔복 1·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팔복동 산업단지 주변은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지 않은 합류식 하수도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 공사를 발주, 오는 2021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사업에서 총 26.4km 길이의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배수 불량지역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전개기로

했다. 또, 노후화된 하수관로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우수·오수 분류식 구간에 접해있는 약 1,700여 가구의 정화조(배수설비)를 폐쇄하고 오수관로에 직접 연결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비가 내리면 빗물과 섞인 오염된 물로 인해 발생하던 악취가 없어지고, 그동안 정화조 청소나 분뇨처리 등을 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도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팔복동 일원을 전주 서·북부권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팔복예술공단 2단지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 △금학천 정비사업 등 팔복동 문화공간화사업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어울림센터 '유클'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내달까지 설계 마무리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내달까지 설계 마무리

전주지역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어울리며 자립을 준비하고 인식을 바꾸는 사회통합형 공간인(가칭)전주시 어울림센터가 유클을 드러내고 있다.

시는 4일 전주시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전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의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어울림센터 건립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주시 어울림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사회통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콘텐츠를 마련되는 공간으로, 시는 오는 10월까지 설계를 마친 후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옛 웨딩홀 공간을 리모델링해 내년 상반기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빛과 소리, 공동체라디오방송국' 등으로 구성되는 통합플랫폼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체력 단련실 △장애체험관 △자조모임실 △작은모임방 △유니버설디자인 화장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용역을 맡은 플러스건축사사무소가 그간의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해서 발표했다.

먼저, 통합플랫폼의 경우, 청각·시각장애인들의 언어이기도 한 '빛과 소리'를 주제로 전국 최초로 체험자의 이동에 따라 콘텐츠가 반응하는 실감미디어 기술이 적용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상설 체험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 체험관에서는 관람객들이 빛과 소리가 공존하는 해저터널에서 소리에 의지해야 하는 '소리공간'과 오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공간'을 지나 지상으로 탈출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장애의 불편함에 대해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의 경우,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과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4년 민선 6기 출범 이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통합형공간인 어울림센터 조성을 추진했으며, 침체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 구 웨딩홀 공간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유니버설디자인 즉,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어울림센터 전 구간 설계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모두가 차별을 느끼지 않는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며 "센터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품격의 전주를 완성해나갈 디딤돌 역할을 해나감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삼천에서 만나는 반딧불이

**전주시, 14일부터 3일간  
삼천상류 등서 탐방행사  
전시·체험·공연 등 다채  
참가비는 1인당 3000원**

도시화로 인해 인공 불빛이 강해지고 하천도 콘크리트호안으로 바뀌면서 우리 곁을 떠났던 전주 도심하천의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는 탐방 행사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전주완산체력공원과 삼천상류 일대에서 '2018 전주 반딧불이 탐방'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늦반딧불이복원사업'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전주도심에서 반딧불이를 만나는 특별한 기회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늦반딧불이와 호랑나비 등의 생물전시, 삼천의 생태를 한 눈에 보는 사진 및 판넬전시, 생태특강과 함께 해설이 있는 탐방

/송효철 기자

# '양승태 행정처' 비자금 조성 고위법관 활동비로 썼다

검찰, 대외 활동비 등으로 수억대 지급  
최종 책임자로 법원행정처장 등 의심

'양승태 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은밀한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 13명 지시로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승태 행정처가 2015년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수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국 상당수 법원에서 모인 자금은 전부 현금화된 뒤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고 대법원 예산담당관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선 공보관실에서 사무실 운영비를 가짜로 청구해 현금화한 돈이 인편을 통해 행정처에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일반재관 운영지원비에 속하는 세부 항목 중 하나다.

최근 비공백 조사를 받은 예산담당자는 뒷선 지시를 받고 이런 업무를 수행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각급 법원이 허위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사항을 담은 행정처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각급 법원 공보관실이 작성한 지출 결의서를 통해 실제로 집행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이 확보한 다수 문건에는 문제가 된 돈을 '고위법관 대외활동비 내지 격려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양승태 행정처가 의욕적으로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일선 법원장 등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받아 상고법원 로비용으로 사용할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외활동비 지급대상자였던 일선 법원장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비자금을 조성하는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최종책임자를 행정처장을 거쳐 보고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단순 횡령을 넘어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교사 등 형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이다.

/뉴시스

## "경적 씨끄럽다" 항의한 행인 살해 40대 징역 6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경적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행인을 목검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0시 50분께 전북 김제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B(41)씨의 머리와 다리를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갑자기 경적을 울리자 "시끄럽다"고 항의하다 폭행을 당했다.

결국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에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

과 사망원인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가 발생하자 목검으로 피해자 3명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중 피해자 1명을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자 두 딸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그 가족들이 비통해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지방선거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5명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및 선거비용 허위보고 등 위반 혐의 3건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모 산악회 회원들의 산행시 4차례에 걸쳐 총 9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익산시의원 A씨를 익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에 수입·지출한 혐의로 정읍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회계책임자 C씨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

좌를 통해서 해야 한다.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장수군수선거 후보자 D씨의 회계책임자 E씨를 다수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사 제공 및 선거비용에 관한 허위기재 혐의로, 자원봉사자 F씨와 G씨는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의 혐의가 있어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할 수 없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하거나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덕진구 사랑의올타리, 환경정화 및 청소년 보호 캠페인

덕진구 사랑의올타리 자원봉사단(회장 정은영)과 조촌동(동장 송근태) 직원들은 지난 4일 환경정화 및 청소년 보호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환경정화활동은 덕진구 사랑의올타리 자원봉사단 회원들이 사람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자 매일 각 동을 순회해 불법투기 취약지 주변을 중심으로 적치된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봉사활동이다.

이날 모인 직원들과 사랑의 올타리 자원봉사단 회원은 조촌동 상가변화가

근처 불법투기 쓰레기와 가로변 불법광고물 등을 수거하고, 또한 청소년이 살기 좋은 전주시 만들기 보탬이 되고자 조촌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홍보 등 청소년 보호 캠페인도 펼쳤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정은영 회장은 "매월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솔선수범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송효철 기자